



일주문

만일 영불회사 법문

녹원 지지사 회주는 6월 6일 오전 10시 30분 청계산 정토사 '만일영불경사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능인선원 수계법회

고산 정계사 조실은 6월 2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능인선원 법당에서 보살계 수계법회의 전개대화상으로 참석한다.

불국사 수계신림법회

태현 수미산 불국사 주지는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분당 불국사 극락보전에서 보살계 수계신림법회를 봉행한다.

지장보살 점안법회

리선행 회성 대승사 회주는 6월 9일 오후 2시 윤4월 지장재일을 맞아 지장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31일 월드컵 디너쇼

김흥국 축구사랑모임 회장은 31일 저녁 7시30분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월드컵 디너쇼를 개최한다.

장미속 범향 그옥



활짝 핀 장미꽃 속에서 만나는 부처님의 미소는 더욱 자비롭다. 경남 창원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7백여평의 장미원에 활짝 핀 120여 종의 장미와 함께 부처님과 포대화상 일곱 분이 모셔졌다. 경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재완 법사(43)가 16년 전부터 가꾸어온 장미원 내에 부처님과 포대화상을 봉안하면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장미의 아름다움과 함께 진하고 깊은 법향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055)253-0108 천미희 기자



조계종 제2대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



“수행 - 포교 겸비한 교육정책 펴겠다”

“오늘날 대학원 이상의 지식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승려의 질적 향상은 승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를 원만히 치르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24일 조계종 고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무비 스님에 이어 제2대 고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처음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의 중요성 때문인지, 이에 대한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에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승가교육의 체계를 바로 잡고 질적 향상을 꾀하지 않고서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고시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 “승가교육의 확고한 체계는 불교의 위상강화를 뜻하는 것이고, 스님들이 사회지도층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기도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3급 승가고시는 바로 그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님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산 스님은 수행과 포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현실감각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u@buddhapia.com

“시민 고통 줄이는 자비경찰 지향”

전국경찰불교회 초대회장 김중겸 치안감

“신심 가득한 신행정체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자 경찰들을 하나로 묶어낸 전국경찰불교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중겸 치안감(54)은 19일 ‘전국경찰불교회’ 창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소모임에서 “경찰들의 발심과 신행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먼저 연합사무소를 경찰청 본청에 두고 각 지방경찰청, 경찰학교를 지부로, 경찰서를 지회로 하는 전국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국경찰불교회는 중앙과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김 회장의 지론이 구체화 된 것이다.

김 회장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만 경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신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동안 불모지나 다름 없던 전 의경에 대한 포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위가 16일로 예정된 전국경찰불교회 창립법회를 10월경으로 옮긴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준비위는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가운데 경찰불자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자회를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중겸 회장은 행사 15회 출신으로, 총리실, 상공부, 경제기획원을 거쳐 경찰에 투신, 영등포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거쳤고, 현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부총재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장애아 순찰차 후송 지원”

상락원과 자매결연 김충현 파출소장

“인암파출소는 상락원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긴급상황 때는 순찰차를 병행까지 후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4일 승가원(이사장 종범스님) 산하의 상락원 장애아 동생활시설(원장 탄호스님)과 자매결연식을 가진 성북경찰서 인암파출소 김충현(49·경위) 소장은 “두 기관이 상호 돈독한 관계를 유지,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 온 제과점의 남은 빵을 모아 전달하고 1000원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작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신도인 김 소장은 99년 성북경찰서불자회를 창립, 1년간 회장을 역임했으며 아들인 김재윤(성균관대 행정학부 2년) 군은 성북회 부회장으로 불교학생회 활동에 열심인 불자가정을 꾸리고 있다. 상락원 장애아동생활시설은 98년 6월 22일 설립, 중앙승가대 기원학사(전 동국대 기숙사)를 개·보수한 시설에 현재 80여명의 중증 장애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관공서와 장애아동 복지시설이 자매결연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통도사 사증스님 모내기

통도사주지 신하는 24일 부방장 약산 스님, 주지 신허 스님, 선방의 수좌 스님들, 강원 학인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내기를 실시했다. 경내 농지 2백마지기에서 모내기를 한 신허 스님은 “공양물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우는 귀한 노동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영숙씨 위덕대에 장학금 1억원

아당 전 진각종 통리원장의 둘째 딸 박영숙 씨(65·행원심인당 신교도와 사위 김행록 씨)가 가족대표로 15일 진각종립 위덕대학교에 1억 원의 장학금을 쾌척했다. 박씨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아당 전 통리원장의 법명을 따서 ‘아당(雅堂)장학금’으로 명명하고 가장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부산 감로사 천일기도 입재식

부산 감로사주지 혜충은 25일 참회기도회관 신축을 위한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입재식에서 혜충 스님은 “회관 건립에 한마음이 되어 천일기도를 잘 회향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회기도회관은 126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4년 완공 예정이다.



파라미타 ‘디지털 청소년 문화’ 세미나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지홍)는 1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디지털시대 청소년 문화의 진단과 방향’을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홍 스님을 비롯해 2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이학주(명성여고), 양동효(광명여고) 교법사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인 가니스와르 스님 강원 순례

“한국과 인도불교의 수행과 교리를 가르치는 승가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데 한국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한 가니스와르 스님(인도 대일반사 주지, 사진 왼쪽)은 인도 쿠시나라에 추진되고 있는 한·인 승가교육센터 건립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불교계의 관심을 일깨웠다. 이날 성근 스님(인도 대한사 주지)과 동행한 가니스와르 스님은 “승가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50여 만 명의 부지는 이미 확보됐다”면서 “승가교육센터는 한·인 수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반사에서 수행했던 성수 스님(정음 율점사 주지)의 정진하는 모습에 한국불교를 남다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가니스와르 스님은 6월 중순까지 운문사, 해인사 등 전국 사찰의 승가교육 현황을 방문하고 6월 7-9일에는 정음 율점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사리 건립법회에도 참석한다. 오종욱 기자 jgoboo@buddhapia.com

Advertisement for 'Sik-si-hyang-bang' (석씨향방) incense. It features the text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and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로만 만듭니다.' Below this, there are images of incense products and detailed descriptions of '五分香' (Wubun-sang) and '生氣香' (Seunggi-sang).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

Advertisement for 'Jin-seung-seok-jae' (진성석재) Art Studio. The main text reads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문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Below this, there are images of various Buddhist statues and artifacts, including a seated Buddha figure, a standing Buddha figure, and a large stone tablet.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031-527-6778, 011-9046-6981, e-mail: LJU729@hanmail.net.